

‘점·선·면’...무한한 상상력에 바치는 오마주

담양 복합예술단지 소아르떼 갤러리, 오는 7월9일까지 개관전시 ‘있다 : Dot to Dot’

‘예술의 대중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소아르떼 갤러리가 대규모 복합예술단지 소아르떼(SOARTTE) 갤러리 개관전을 선보인다. 오는 7월9일까지 대규모 복합예술단지 ‘소아르떼 (SOARTTE·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84-54)’에서 열리는 개관전 ‘있다 : Dot to Dot’이다.



박아론작 'The Rising Stones, 완도 정도리'



임용현작 'Apple Consume'



이수진작 '일개, 프로젝션 매핑'



유지원작 'Biblio-Trace(흔적 서재)'

소아르떼는 몰입형 미디어아트관, 미술관, 갤러리 존, 문화예술교육센터, 상가단지, 주거단지 등 다양한 건물들로 이뤄진 1만5천평 규모의 복합예술단지다. 지난 4월1일 미디어아트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오픈 이후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이번 전시는 총 7개관 10평형 갤러리로 구성된 단지 내 갤러리존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예술인 개인, 작품과 거기서 파생되는 내러티브, 이를 마주하는 관객 모두를 ‘점’으로 인식하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조형의 최소 단위인 ‘점’이 이어져 선, 면, 형태로 점차 확장되듯 소아르떼는 이번 개관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의 좋은 작가와 작품을 발굴·연구하고 네트워크

키하겠다는 단지 운영의 포부를 담았다.

전시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명우·김자이·박아론·유지원·이수진·임용현·정덕용 7명 작가가 참여한다.

김명우는 미디어의 매체성과 그 변별성에 의구심을 품고 포스트 미디어의 가상성과 경계, 매체의 연속성과 차원의 문제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작업을 전개한다.

김자이는 작가 본인의 무의식적 휴식의 언어를 시각적 언어로 새롭게 기록하며,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 그 언어를 의식 밖으로 끌어내는 작품들을 진행 중이다.

박아론은 자연에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또는 애초에 생명을 갖지 않은 물질들을 본래의 공

간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공간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유지원은 ‘장식적 가치’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간 안에서 반복되는 사회 문화적 의미의 생성과 소멸을 건축적 이미지를 차용해 표현하거나 건축 재료를 이용해 구성함으로써 재정의·맥락화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이수진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공존에 집중하며 작품과 관객 간 거리를 좁히고 사람들이 온몸으로 예술을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매핑과 파사드를 이용한 작품을 이어나간다.

임용현은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혹은 물리적 특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보는 진실과 가공된 진실의 모호함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정덕용은 여러 관점과 인식, 모호하고 의의한 현상 등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한 작품들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무료 관람 가능하다. 단지 방문객들은 갤러리존 전시 이외에도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문화예술교육체험, 야간 라이트쇼(매일 오후 7-9시, 시범 운영 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1-383-7888. /최명진 기자



G.MAP외벽미디어파사드전경

‘디지털 별자리’ 더 오래 만난다

G.MAP 국제 미디어파사드 전시연장·실내전 개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 국제 미디어파사드전 ‘디지털 별자리’가 더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과 만난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은 오는 7월30일까지 ‘디지털 별자리’ 외벽 미디어파사드 전시와 함께 실내 전시를 개최한다.

제2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실내 전시는 관람객들의 실내 상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실내 전시와 외벽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시 기간도 기존 7월9일부터 7월30일까지 연장을 개최한다.

외벽 미디어파사드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내 전시는 G.MAP 전시운영 기간(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 휴무) 동안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 별자리’는 서로 다른 5개국 작가들이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에서 각자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동시에 서로를 연결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이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전시다.

미디어파사드 작품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영감을 받고 자란 작가들이 가상의 꿈의 공간, 버려진 오래된 폐허, 삶과 죽음 등 각 도시의 고유한 지역성을 여러 양태로 보여준다.

동시에 다른 색깔을 띤 도시들은 미디어아트라는 하나의 장르로 공존하고 연결돼 전세계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최명진 기자

‘도시 속에서, 예술 속에서 걷기’

6-7월 ACC 테마강좌

‘걷기, 해매기’에 담긴 의미를 응수 깊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 곁을 찾아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6-7월 ACC 문화교육실에서 ‘걷기, 해매기’ 전시와 연계한 ‘2023 ACC 테마강좌’를 모두 4차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시읽기’ 강연과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활동’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연은 오는 13일 ‘당신을 위한 것이냐 당신의 것은 아닌’의 저자 정지돈 소설가와 함께 한다. ‘도시 속에서 걷기’, ‘예술 속에서 걷기’를 주제로 도시 속으로 산책을 떠난다.

7월엔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방식

을 경험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활동’, 건축가의 눈으로 본 ‘전시읽기’ 강연이 이어진다.

11일 도시 문제 해결에 힘써온 예술 창작 집단인 리스튜디오와 함께 ‘모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퍼포먼스 창작활동’을 준비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 전당 건물의 대피지도를 그려보면서 대피 각본을 함께 짜본다.

이어 13일에는 ‘동네 걷기, 동네 계획’의 저자 박소현 건축가(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동네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얼마나, 왜 걸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실증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좋은 동네와 걷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번 테마강좌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함께 脈을 이어가며...”

21일까지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정기전

창립 40주년을 앞둔 광주·전남여성작가회가 지역 여류화가들의 작품을 아카이브하는 정기전을 마련했다.

광주미술협회 기획으로 마련된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제39회 정기전 ‘함께 脈(脈)을 이어가며...’전이 오는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1982년 창립된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정기전과 특별전을 개최하며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분야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고향에 이른 초창기 여류화가들의 작품을 아카이브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전시 역시 그 맥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시 도록에 수록된 대표작을 포함해 전 회원이 아카이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황경숙 광주·전남여성작가회장은 “암울했던 코로나 시기로부터 돌아온 일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번 전시가 오랜 시간 지쳐 있던 이 시대에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 특



고정화작 '가족이야기'

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나누고 싶었던 삶과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광주 예술의 맥을 이어가려는 작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녹아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함평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함평군

문의 : 062)650-2099